

2011년 국가직 9급 문제해설과 정답

유두선 교수 제공

1. ① ‘텅쿨, 녕쿨’이 표준어, ‘텅쿨’은 비표준어
 - ② ‘벌레, 버러지’가 표준어
 - ③ ‘푸줏간’이 표준어
 - ④ ‘고까, 꼬까, 때때’가 모두 표준어
- 정답 ④

2. ① ‘안’은 부정어 일 때 띄어쓴다.
 - ③ ‘간’은 둘의 사이임을 뜻할 때는 의존명사로 띄어쓴다.
 - ④ ‘지’는 시간 개념을 뜻할 때는 띄어쓴다.
- 정답 ②

3. ‘바늘 땀에 두부 살’은 몸이 몹시 가냘프고 연약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땀이 바늘같이 가늘다. ‘살’이 두부처럼 약하다는 것을 연상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 정답 ①

4. ‘늑닷’은 ‘익었다는’의 뜻이다.
- 정답 ②

5. 득룡망촉(得龍望蜀)
~한나라 광무제가 농 땅을 평정한 뒤에 다시 촉나라를 차지하려고 하였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간의 욕심이 무한정함을 나타냄. ‘말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와 관련된다..
- 정답 ①

6. 제시된 뜻풀이는 ‘사변적’이란 어휘의 뜻풀이다.
 - ① 사색(思索) -> 줄거리를 세워 깊이 생각함
 - ② 사유(思惟) -> 철학에서 감각, 지각 이외의 인식 작용으로 분석, 종합, 추리, 판단 등의 정신 작용을 뜻함
 - ③ 사상(思想) -> 사고 작용의 결과로 얻어진 체계적 의식 내용
- 정답 ④

7. ‘식별이 용이하다’는 사물의 성질이나 종류 따위를 구별하는 것이 쉽다는 의미
- 정답 ②

8. ‘옛날에 어진 인제는 보잘것 없는 집안에서 많이 나왔었다.’가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차별 없이 등용해야 한다는 것이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다.
- 정답 ③

9. 주어진 글은 인물의 성격에 관한 글이다. ㉠, ㉡, ㉢은 인물 또는 인물이 성격에 관한 글

이다. 그러나 ㉠은 사건에 관한 글이다. 따라서 ㉠은 논리 전개상 불필요한 문장이다.

정답 ①

10. 넷째 줄부터 여섯째 줄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 ‘북몽골로’부르면 중국과의 불화가 일어난다고 했다. 즉 외교적 마찰이 생긴다는 말이다. 따라서 ㉠번은 필자의 생각과 부합되지 않는다.

정답 ①

11. 언어 사용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것은 우리말을 사랑하는 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한 탓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에는 민족정신이 담겨 있으니까 그것을 바르게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심 내용을 먼저 찾은 후에 그 이유를 찾으면 전체가 된다.

정답 ③

12. ㉠에서 ‘으로’는 작용한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① 재료 ② 이유 ③ 방향 ④ 결과

문법을 생각하지 말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요령이다.

정답 ④

13. ㉠은 지난 껍질을 벗어야 새것을 얻는다는 의미다. 앞뒤 모순된 표현 속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에 해당한다. ① 활유법 ② 대유법 ③ 반어법 ④ 역설법

정답 ④

14. ‘뽀뽀’에서 ‘나’는 교활한 장인에게 이용만 당하고 있다. 순박하고 우직한 성격으로 조금은 부족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팔불출’은 몹시 어리석은 사람을 이르는 말로 팔불용(八不用). 팔불취(八不取)라고도 한다. ‘각닥귀’는 남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을 뜻한다.

정답 ③

15. 서술어를 통해 - ‘무엇을’ 또는 ‘누구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①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② 이 책을 ~읽은 적이 없다.

③ 세계 혜택만을 강조하였다.

④ ‘공람시켜야 한다’의 목적어는 ‘서류를’이다. ‘일반에게’는 부사어에 해당한다.

정답 ④

16. ㉠ 우리말로 적을 수 있는 것은 우리말로 표기한다. ㉡ 1., 2., 3.과 대응하는 것은 가, 나가 적당하다. ‘가, 나’의 하위 항목은 (가), (나)로 적는다. ㉢ 상위 항목에 행사 일시로 나와 있으니 ‘시간’을 표시해야 한다. ㉣ 년, 월, 일을 생략한 곳에 ‘온점’을 모두 찍어야 한다. 고칠 필요가 없다.

정답 ④

17. ㉠은 병서법에 해당

② ㄱ→ㅋ, ㄴ→ㄷ은 가획원리에 해당한다.

③ 모음은 합용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정답 ②

18.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의/이]로 발음하고 조사 ‘의’는 [의/에]로 발음한다. 첫음절의 ‘의’는 [의]로만 발음한다. 민주주의[의/이]의[의/에] 의의[의의/의이]

정답 ①

19. ①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다급한 심리를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② ‘원화’는 ‘시끄럽게 지껄이어서 떠들’을 뜻한다.

③ ‘방상’은 죄인을 감옥에서 나가도록 풀어주던 일을 뜻한다.

④ ‘~ㄴ다’는 2인칭에서 사용되는 의문형 어미다.

정답 ②

20. 선친과 선고는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다.

정답 ③

출제경향과 분석

이번 국가직 시험은 문학 4문제, 독해·쓰기 5문제, 문법·어휘 9문제, 한자 2문제로 전 영역이 골고루 출제되었다. 대체로 문제는 무난한 편이었다. 그러나 독해에서 생각을 욕하는 문제가 한두 문제 출제된 것이 눈에 띈다. 전체 경향은 그 동안 등한시 되었던 문학 비중이 늘었고 독해 지문이 짧게 출제되어 수험생들에게 시간 부담이 적었다는 점이다. 문법에서는 로마자·외래어 표기가 출제되지 않았고 작년에 이어 고전문법이 출제되었다. 그리고 조사와 문장 성분이 출제된 점도 유념해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많이 보강해야 할 듯하다. 지방직 문제는 늘 국가직보다 어렵게 출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독해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